

뮌헨 안보 보고서 2026: 파괴 중 (Under Destruction)

[1-4페이지]

- @msc
- 파괴 중 (Under Destruction)

+1

- 뮌헨 안보 보고서 2026 (Munich Security Report 2026)

+1

- 2026년 2월
- **작성자 및 팀:** 토비아스 분데(Tobias Bunde), 소피 아이젠트라우트(Sophie Eisentraut), 나탈리 냅(Natalie Knapp), 로이신 크로닌(Róisín Cronin), 발렌틴 다우르(Valentin Daur), 란돌프 카(Randolf Carr), 줄리아 함멜레홀레(Julia Hammelehle), 니콜 쾨니히(Nicole Koenig), 노라 퀴르츠되르퍼(Nora Kürzdörfer), 이사벨 쿵(Isabell Kump), 아마데 무디-만츠(Amadée Mudie-Mantz), 카트린 슈트랄(Kathrin Strahl), 핀-니클라스 프랑케(Fynn-Niklas Franke)

[5페이지] 목차

- 서문 (Foreword): 6
- 요약문 (Executive Summary): 9
- 1 서론: 파괴 중 (Introduction: Under Destruction): 13
- 뮌헨 안보 지수 2026 (Munich Security Index 2026): 36
- 2 유럽: 분리 문제 (Europe: Detachment Issues): 59
- 3 인도-태평양: 협약인가 허구인가? (Indo-Pacific: Pact or Fiction?): 69
- 4 세계 경제: 교역 조건 (Global Economy: Terms of Trade): 79
- 5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수천 번의 자상으로 인한 죽음?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Death by a Thousand Cuts?): 89
- 생각할 거리 (Food for Thought): 99
- 부록 (Appendix): 103

- 미주 (Endnotes): 103
- 도표 목록 (List of Figures): 114
- 이미지 출처 (Image Sources): 117
- 약어 목록 (List of Abbreviations): 117
- 팀 (Team): 118
- 감사의 글 (Acknowledgments): 119

[6-7페이지] 서문 (Foreword)

볼프강 이상거(Wolfgang Ischinger)

독자 여러분께,

2026년 뮌헨 안보 회의는 깊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개최됩니다. 이 회의의 최근 역사에서 유럽의 안보, 대서양 파트너십의 회복력,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를 관리하는 국제 사회의 능력에 대해 이토록 많은 근본적인 질문이 동시에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1

올해 뮌헨이 받고 있는 비상한 관심은 단순히 글로벌 의제를 지배하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의 반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 체제 내에서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 세대 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힘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원칙들에 대한 폭넓게 공유된 이해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훨씬 덜 확실해 보이며, 대서양 및 국제 협력의 미래 모습에 대해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긴장은 작년 뮌헨 안보 회의에서도 이미 가시화되었습니다. 뮌헨을 넘어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은 현재 미 행정부의 핵심 사안에 대한 관점이 오랫동안 미국의 대전략을 이끌어온 초당적인 자유주의-국제주의적 합의와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미국 외교 정책의 이러한 재조정(recalibration)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올해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의 안보 아키텍처부터 국제법의 핵심 원칙, 무역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의제에 오른 다른 많은 과제는 미국의 진화하는 국제 질서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

최근 몇 년간 뮌헨 안보 보고서는 광범위한 행위자들 사이의 경쟁적인 질서 비전을 검토하며 의도적으로 넓은 관점을 취해왔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1945년 이후 질서의 핵심 원칙에 대한 고조되는 반발에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저자들은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전개 상황을 살피고, 그 결과가 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 및 개발 협력 분야의 변화를 조사합니다.

+2

현재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그 완전한 결과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역동성을 촉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건설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토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뮌헨 안보 회의가 급변하는 세계에서 다시 한번 대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언제나 그렇듯, 보고서에 분석과 데이터, 인포그래픽을 제공해 준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리며, 흥미로운 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뮌헨 안보 회의 의장, 볼프강 이싱거 대사 드림

[9-11페이지] 요약문 (Executive Summary)

세상은 난폭한 철거 정치(wrecking-ball politics)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중한 개혁이나 정책 수정보다는 전면적인 파괴가 오늘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기존 질서의 제약으로부터 국가를 해방시키고 더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는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이가 바로 현재의 미국 행정부입니다. 그 결과, 건설이 시작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주도의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는 현재 "파괴 중(under destruction)"에 있습니다.

+2

많은 서구 사회에서 개혁보다 파괴를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 세를 얻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가 걸어온 자유주의적 궤적에 대한 원망과 후회에 이끌려, 그들은 더 강하고 번영하

는 국가의 등장을 가로막는다고 믿는 구조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의제는 민주적 제도의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환멸과 의미 있는 개혁 및 정치적 노선 수정에 대한 만연한 신뢰 상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뮌헨 안보 지수 2026을 위해 설문 조사된 모든 G7 국가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이 미래 세대를 더 낮게 만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정치 구조는 이제 과도하게 관료화되고 사법화되어, 국민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도록 개혁하고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도저, 철구(wrecking balls), 전기톱을 사용하는 이들이 조심스러운 감탄을 받거나 심지어 공개적인 찬사를 받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4

기존의 규칙과 제도에 도끼를 들이대는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 워싱턴의 불도저 정치는 제도의 타성을 깨뜨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과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토(NATO) 국방비 지출 목표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의 돌파구가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파괴가 정말로 국민의 안보, 번영, 자유를 증진할 정책을 위한 터를 닦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대신 우리는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적 합의(transactional deals)에 의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의해, 그리고 보편적 규범보다는 지역 패권국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난폭한 철거 정치에 희망을 건 대중이 아니라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4

미 행정부의 기존 국제 질서 핵심 요소 거부는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정책 영역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정부들이 오랫동안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의존하며 큰 혜택을 입어온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와 규칙에 대한 워싱턴의 급격한 유훈(U-turn)의 영향을 세계 무역과 국제 개발 및 인도적 지원보다 더 강하게 느낀 정책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의 일부 지역에서 전술적 주도권을 되찾는 것처럼 보이고 유럽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워싱턴의 점진적인 후퇴,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는 지원,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적인 수사는 유럽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제2장).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이제 안심시키기, 조건부 설정, 강압 사이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것으로 인식됩니다. 워싱턴의 변화하는 신호에 직면하여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계속 관여시키는 동시에 더 큰 자율성을 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

인도-태평양 지역(제3장)에서 미국의 파트너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응 기제는 더 적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중국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과 강압을 통해 지역 패권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국가들은 자체적인 국방 노력을 강화하며 대응해 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안보 보장과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익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최근 행동들이 그 목표와 모순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심지어 워싱턴에 파트너를 지원하는 것보다 베이징과의 거래가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적절한 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배우들은 미국의 약속을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중국에 손을 뻗어 위험을 분산(hedging)하려는 시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 체제(제4장)는 평등한 성장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세계 무역기구(WTO)가 공동 규칙의 공정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실패들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산업 쇠퇴에 기여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 이후 워싱턴은 한때 자신이 만드는 데 일조했던 세계 무역의 규칙을 노골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WTO 규정에 어긋나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우선주의"에 유리한 양자 간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을 대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시장 왜곡 관행을 지속하고 경제적 급소(chokepoints)의 무기화를 확대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직면한 전 세계 정부들은 무역 제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많은 정부는 무역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WTO 법에 근거한 새롭고 더 깊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세계 무역과 마찬가지로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제5장)도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적 압박, 포퓰리즘적 허위 정보 캠페인, 그리고 더욱 지정학적으로 경쟁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공여국들은 국가 이익을 더 좁게 정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세계는 2030년까지 17개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어느 것도 달성할 궤도에 있지 않았습니.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시스템을 실존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DGs를 "글로벌리스트의 시도"라고 비난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삭감은 이미 많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백이 완전히 채워질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연대를 고수하는 이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도전 과제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칙 기반 질서에 투자하고 있는 배우들은 난폭한 철거 정치의 영향을 억제하고 워싱턴의 주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며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만약 자신들이 불도저 정치의 방관자로 남는다면 결국 강대국 정치의 자비에 맡겨지게 될 것이며, 소중히 여겼던 규칙과 제도들이 잔해 속에 남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 정책의 최악의 표현을 억제하려면 이러한 배우들이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 자원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통합하며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 정치에 반대하는 정부들은 의미 있는 개혁과 정치적 노선 수정이 실행 가능하며, 그것이 광범위한 파괴 정책보다 고조되는 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신뢰 있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

[13-34페이지] 1. 서론: 파괴 중 (Under Destruction)

토비아스 분데 및 소피 아이젠트라우트

"나의 최근 당선은 끔찍한 배신과 그동안 일어난 수많은 배신을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되돌리고, 국민에게 그들의 믿음과 부, 민주주의, 그리고 참으로 그들의 자유를 되찾아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습니다."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사, 2025년 1월 20일

+1

격동의 한 해를 보낸 후 국제 질서의 상태는 어떠한가? 왜 개혁보다는 파괴를 밀어붙이는 정치 세력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가? 난폭한 철거 정치가 세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2025년 10월, 건설 인부들이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백악관의 상당 부분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동관(East Wing)의 넓은 부분을 허물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의 대통령직의 핵심 약속인 '워싱턴을 뒤흔드는 것'을 반영합니다. 개보수나 점진적인 개혁을 논의하는 대신,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짓기 위해 물 건들을 파괴합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역할을 "최고 건설자(builder in chief)"로 여기며, 그가 새로운 연회장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민간 후원자 그룹을 모았다는 사실을 그의 '할 수 있다'는 정신(can-do mentality)과 미국 납세자에 대한 배려의 증거로 간주합니다. 이 관점에서 사치스러운 연회장은 미국의 재건과 국가 안보 전략(NSS)에서 구상된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트럼프의 약속에 대한 상징입니다.

+4

트럼프의 비판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상징적입니다. 그들은 이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규범에 대한 그의 공격, 적법 절차에 대한 경멸, 그리고 대통령직을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은유로 봅니다. 일부는 새로운 동관의 초기 모델에서 충돌하는 창문과 명확한 착지점이 없는 계단 등 또 다른 트럼프식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물건을 부수는 트럼프식 접근의 전형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연회장 에피소드는 또한 그가 대통령직을 제약 없는 정치적 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는 비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시각에서 민간 후원자에 대한 의존은 공적 권위와 사적 이익 사이의 경계에 대한 트럼프의 거래적 논리를 강조합니다.

+4

그러나 물리적 구조물을 해체하려는 트럼프의 의지는 국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서 나타나는 더 넓은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도 작용합니다. 약 80년 만에 미국 주도의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는 파괴 중입니다.

+1

철거 전문가들 (Demolition Men) 도널드 트럼프는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는 더 넓은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자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혁보다는 기존 제도를 허물겠다고 약속하며 부상한 지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캠페인 소품으로 전기톱을 휘둘렀고,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통해 파괴를 즐겼으며, 수많은 정치인이 관료주의, 법원, 또는 국제 협정의 파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근본적인 충동을 가리킵니다: 의미 있는 변화에는 수리가 아닌 철거가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이 "철거 전문가들"은 현상 유지에 대한 광범위한 실망을 먹고살며 국가 및 국제 수준 모두에서 급진적인 단절에 대한 권한을 주장합니다.

+4

사회의 부유하고 강력한 부분이 아닌 상당수 인구 사이에서 기존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좌절과 점진적 개선의 신뢰성에 대한 깊은 불신이 이 발전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뮌헨 안보 지수 2026을 위해 수집된 여론 조사 데이터는 정부가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회의론을 반영합니다. 조사 대상인 모든 G7 국가에서, 현재 정부 정책이 미래 세대를 더 낮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그러한 정책이 미래 세대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에 비해 훨씬 뒤쳐집니다 (그림 1.1). 그 결과 개인적, 집단적 무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림 1.2).

+3

기존 질서에 대한 이들의 원망은 제도적 역기능에 대한 좌절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가 걸어온 자유주의적 궤적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들은 특히 열린 국경, 다문화주의, 성평등, 그리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멸을 표하며, 이것이 국가를 문명적 쇠퇴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합니다. 이 perceived 쇠퇴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소위 "페미니즘 이전의 백인 기독교" 과거를 부활시키려는 "문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운동은 그들이 애도하는 과거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제도, 프로그램, 동맹을 파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4

파괴의 현장에 서서 (Present at the Destruction) 기존 구조와 규칙에 도끼를 든 이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는 미국의 막대한 힘 때문입니다.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던 국가의 대통령이 이제 그 해체의 전면에 섰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그는 제도적 제동 장치가 줄어든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더 큰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은 "개인주의적 정권의 외교 정책"과 같아졌으며, 트럼프의 본능이 곧 외교 정책이 되었습니다.

+4

"전후 세계 질서는 단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 80년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돈 속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당시 발언, 2025년 1월 15일**

이것은 기존 질서의 핵심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전략을 뒷받침해 온 "칸트의 평화 삼각형"의 세 기둥을 모두 공격했습니다. 첫째, 다자간 기구가 미국 권력을 제약하기보다 강화한다는 믿음, 둘째, 개방된 국제 질서와 경제 통합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확신, 셋째,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가정입니다.

+2

트럼프는 취임 직후 WHO와 파리 협정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USAID를 폐쇄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공언하며 국제법 원칙을 Disrupt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토 보전 규범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 압력을 넣거나 그린란드 인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유 진영의 리더"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4

창조적 파괴인가, 파괴적 창조성인가? 일부 관찰자들은 이 "트럼프 쇼크"를 '창조적 파괴'

로 봅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탈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이나, 가자 지구의 휴전 논의가 진전을 보인 것 등이 사례로 언급됩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초기에는 이를 다극화의 기회로 보고 낙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림 1.4).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브라질과 인도가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되는 등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4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는 강자들에게만 유리한 징후를 보입니다:

1.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의 논리:** 강대국들이 각자의 지역을 지배하고 보편적 가치보다 강대국 지배를 우선시하는 질서.

+1

2. **거래 기반 질서(Deals-based Order):** 조약 대신 지도자 간의 즉흥적이고 거래적인 합의가 외교를 대체하는 형태.
3. **신왕정 질서(Neo-royalist Order):** 국가 이익 대신 지배 엘리트의 사적 이익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첫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이 주권과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간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수리 불가능인가? (Beyond Repair?) 태동하는 무질서의 시나리오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세계 각국 정부는 이제 '희망은 전략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방관자로만 남는다면 강대국 정치의 자비에 맡겨질 뿐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파괴적 행동에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4

국제 규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물질적 권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방어할 군사력과 전략적 경쟁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제 규칙을 수호하는 행위자들은 파괴자들만큼이나 대담해져야 합니다. 혁신적인 사고와 정치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낡은 질서의 붕괴를 애도하기보다, 파편 위에서 더 크고 정의로운 무언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난폭한 철거 정치의 시대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은 파문힐 위험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4

[35페이지] 핵심 요약 (Key Points)

서론 (INTRODUCTION)

1. 세상은 '난폭한 철거 정치(wrecking-ball politics)'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서구 사회에서 점진적인 변화보다 파괴를 선호하는 지도자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파괴적인 의제는 민주적 제도의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환멸과 의미 있는 개혁에 대한 만연한 신뢰 상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1

2.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가장 두드러진 '철거 전문가(demolition men)'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설이 시작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전후 국제 질서는 현재 '파괴 중(under destruction)'에 있습니다.
3. 지지자들에게 워싱턴의 불도저 정치는 제도의 타성을 깨뜨리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과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 파괴적인 정책이 인류의 가장 벅찬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국제 사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 방식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파괴적 변화에 희망을 걸었던 대중이 아니라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2

4. 여전히 규칙 기반 질서에 투자하고 있는 이들은 점점 더 스스로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 정책의 최악의 표현들을 억제하고 싶다면, 그들은 핵심 구조를 더 잘 요새화하고, 새롭고 더 지속 가능한 설계를 도출하며, 스스로 더 대담한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1

[36-37페이지] 뮌헨 안보 지수 2026 (Munich Security Index 2026)

2021년부터 MSC와 Kekst CNC는 전 세계의 위험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들에 대해 글로벌 합의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얼마나 되었다고 느끼니까? 5가지 지표를 결합한 이 지수는 G7 국가와 BICS 국가(러시아를 제외한 BRICS 국가) 등 11개국이 시간에 따라 32가지 주요 위험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3

미국 외교 정책의 현재 전개 상황을 반영하듯,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G7 및 BICS 국가의 응답자들은 이제 미국을 작년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림 1.8).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심각성이 급증했던 작년 판 뮌헨 안보 지수(MSI)에서 이미 분명한 추세의 연장선입니다.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인식된 위협은 미국과 관련된 위협입니다. 또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위협은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며(그림 1.8), G7 및 BICS 국가 전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순위가 매겨졌습니다(그림 1.9 및 1.10). 그러나 미국과 무역 전쟁의 위협에 대한 인식된 심각성이 급격히 상승한 반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많은 다른 위협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러시아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심각성은 2021년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작년 조사 이후 모든 조사 대상 국가, 특히 G7 국가들 사이에서 감소했습니다(그림 1.8). G7 국가들 사이에서 러시아는 응답자들이 평가한 32개 위협 중 두 번째에서 여덟 번째로 심각한 위협으로 떨어졌습니다(그림 1.9). BICS 국가 그룹에서 러시아는 2021년 이후 MSI의 모든 반복 조사에서 항상 가장 덜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그림 1.10). 따라서 작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G7 국가와 BICS 국가들은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대해 양극화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3

글로벌 의제를 지배하는 수많은 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환경적 위협은 덜 임박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가열화의 실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날씨, 산불, 기후 변화를 자국에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21년 MSI 첫 발행 이후 G7 및 BICS 국가 전체에서 감소하여 2025년에 새로운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그림 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BICS 국가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환경적 위협을 자국의 최상위 위협으로 꼽고 있으며, 이 패턴은 2021년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그림 1.10). 반면 G7 국가들 사이에서 환경적 위협은 최근 몇 년간 순위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이버 공격, 경제 또는 금융 위기, 적으로부터의 허위 정보 캠페인이 G7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그림 1.9).

+4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다수의 위협이 작년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림 1.8). 그러나 영국, 미국, 인도에서는 반대 추세가 나타나, 작년보다 더 많은 위험이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서는 식량 부족, 민주주의 붕괴, 불평등 심화, 경제 또는 금융 위기, 내전 또는 정치적 폭력, 무역 전쟁 등 국가의 경제 및 정치 상황과 관련된 위험의 인식된 심각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많은 국가를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림 1.12). 특히 미국에 대한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모든 조사 대상 국가의 응답자들은 미국을 작년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중국과 인도를 명확한 예외로 하고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그림 1.11).

+4

[38-39페이지] 지수 설명 (Explaining the Index)

올해 MSI는 G7 및 BICS 각 국가에서 약 1,000명의 대표 표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총 표본은 11,099명입니다. 조사는 2025년 11월 5일에서 25일 사이에 업계 선두의 온라인 패널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습니다. 현지 조사는 유럽 여론 및 마케팅 조사 협회(ESOMAR) 강령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고 명성 있는 현장 파트너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대상 인구는 각 조사 대상 국가의 성인 인구였습니다.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 정규 교육 및 소득에 따른 층화 할당 추출법으로 응답자를 선정했습니다. 최종 데이터는 할당량에 정확히 맞도록 가중치가 부여되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3.1%입니다. 독재 국가에서의 여론 조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어 항상 도전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4

민헨 안보 지수는 5가지 핵심 차원을 결합하며 각 차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지수는 다음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위험의 심각성을 측정하며, 각 차원은 별도의 질문으로 포착됩니다.

+1

1. **전반적 위험 (Overall):** 다음 사항들이 귀하의 국가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합니까? (0: 가장 덜 심각함 ~ 10: 최대 위험)
2. **궤적 (Trajectory):**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귀하의 국가에 초래되는 위험이 내년에 증가할지, 감소할지, 아니면 동일하게 유지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1: 크게 증가 ~ 5: 크게 감소, 이후 0-10으로 재조정 및 역산)
3. **심각성 (Severity):**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만약 그것이 일어나거나 중대한 위험이

된다면 귀하의 국가에 미칠 피해가 얼마나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매우 낮음 ~ 10: 매우 심각한 피해)

- 4. 임박성 (Imminence):**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그것이 언제(발생한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험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현재 또는 수개월 내 ~ 8: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음, 이후 0-10으로 재조정 및 역산)
- 5. 준비 태세 (Preparedness):**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귀하의 국가가 이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가장 덜 준비됨 ~ 10: 가장 많이 준비됨, 이후 역산)

각 국가의 각 위험에 대한 최종 위험 지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위 5가지 입력값의 평균 점수를 합산합니다. 결과 총합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0에서 100 사이로 재조정됩니다. 최종 위험 지수 점수는 절대 수치(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은 가능한 점수)이며, 인구 통계, 국가 간, 그리고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합니다.

+2

[40-43페이지] 데이터 시각화 개요 (Risk Heatmap & Bump Charts)

(역자 주: 이 섹션은 32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G7 및 BICS 국가들의 상세 점수와 순위 변동을 보여주는 도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텍스트 내용만 번역합니다.)

- **그림 1.7 위험 히트맵(2025년 11월):** 국가별 32개 위험 요인의 지수 점수를 보여줍니다. 브라질은 기후 변화(78), 독일은 사이버 공격(75), 프랑스는 이슬람 테러리즘(73)을 높게 인식합니다.

+3

- **그림 1.8 변화 히트맵:** 2024년 11월 대비 지수 점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캐나다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에서 미국과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 인식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그림 1.9 G7 위험 순위 변동 차트 (2021-2025):** G7 국가 전체에서 사이버 공격(+3)과 경제 위기(+5), 무역 전쟁(+10)의 순위가 상승한 반면, 기후 변화(-5)와 팬데믹(-18)은 하락했습니다 .
- **그림 1.10 BICS 위험 순위 변동 차트 (2021-2025):** BICS 국가들은 기후 변화(1위)와 극한 날씨(2위)를 여전히 최우선 위험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14)과 무역 전쟁(+11)의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

[44-54페이지] 국가별 프로파일 (Country Profiles)

캐나다 [44페이지]

- 작년 이후 미국에 대한 위험 인식이 19포인트 증가한 것은 조사된 모든 위험과 국가 중 가장 급격한 상승입니다.
- 무역 전쟁은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 캐나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기후 변화, 극한 날씨, 서식지 파괴 등 세 가지 환경 위험 모두 작년보다 심각성이 낮아졌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제외한 모든 32개 위험을 작년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1

프랑스 [45페이지]

- 프랑스 응답자들의 최우선 우려는 3년 연속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입니다.

+1

- 경제 또는 금융 위기와 불평등 심화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심각한 위험으로 꼽혔습니다.

+1

- 무역 전쟁이 자국에 임박한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프랑스 응답자의 비율은 63%입니다.

독일 [46페이지]

- 사이버 공격이 독일 응답자들에 의해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 대부분의 위험을 작년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불평등 심화에 의한 위험은 3포인트 증가하여 이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

- 러시아에 의한 위험은 여전히 독일인들의 주요 관심사(지수 71)이며, 응답자의 48%가 이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탈리아 [47페이지]

- 다른 모든 G7 국가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응답자들은 극한 날씨와 기후 변화를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 그러나 환경 위험의 인식된 심각성은 작년 대비 기후 변화 분야에서 10포인트 하락하는 등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1

- 무역 전쟁과 미국에서 비롯되는 위험 등 지정학적 위험은 이탈리아인들에게 위험 인식이 증가한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일본 [48페이지]

- 타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즉 중국(2위), 러시아(4위), 북한(5위)이 일본 응답자들의 최상위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 사이버 공격은 일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위험이며,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보는 유일한 위험입니다.
- 일본 응답자의 60%는 사이버 공격이 자국에 임박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영국 [49페이지]

-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달리, 영국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위험을 작년보다 더 심각하게 봅니다.
- 러시아에 대한 인식된 위험이 6포인트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 번째로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 영국 응답자의 41%는 전쟁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이주 위험에 자국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미국 [50페이지]

- 정치적 양극화가 미국 응답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이후 심각성 인식이 실질적으로 상승했습니다.
- 경제 또는 금융 위기와 무역 전쟁이 각각 2위와 6위로 급부상했습니다.
- 미국 응답자들은 32개 위험 중 23개를 작년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0%는 민주주의 붕괴가 자국에 임박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1

브라질 [51페이지]

- 브라질 응답자들은 환경 위험을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지만, 작년보다는 덜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 불평등 심화(4위)와 경제 위기(5위) 또한 브라질인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 미국(+11)과 무역 전쟁(+8)에서 비롯되는 위험 인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중국 [52페이지]

- 중국 응답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무역 전쟁이 자국에 가장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 하지만 미국이 가하는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 중국 응답자들은 이란, 러시아, 북한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32개 위험 중 가장 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인도 [53페이지]

- 인도 응답자들은 기후 변화와 자연 서식지 파괴를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봅니다.

+1

- 미국이 자국에 가하는 위험 인식이 32개 위험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18).

+1

- 인도인들은 32개 위험 중 단 3개만을 작년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54페이지]

- 경제 또는 금융 위기(1위)와 불평등 심화(2위)가 남아공 응답자들의 최상위 우려 사항입니다.

+1

- 미국에 의한 위험 인식이 작년 이후 17포인트 상승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

- 모든 환경 위험은 작년 대비 현저히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55-56페이지] 타국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f Other Countries)

(역자 주: 이 섹션은 설문 응답자들이 다른 국가를 '동맹'으로 보는지 '위협'으로 보는지에

대한 순익(동맹 응답률 - 위협 응답률)을 보여줍니다.)

- **그림 1.11 타국에 대한 인식(2025년 11월):** G7 국가들은 서로를 강력한 동맹으로 인식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큰 위협으로 봅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를 위협보다는 동맹에 가깝게 인식하는 명확한 예외를 보여줍니다.

+1

- **그림 1.12 인식 변화:** 작년 대비 미국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위협 쪽으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특히 캐나다(-12), 프랑스(-16), 브라질(-15)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중국은 서구 국가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

[57페이지] 환경 위험의 임박성 인식 (Imminence of Environmental Risks)

- **그림 1.13:** 기후 변화가 '현재 또는 수개월 내'에 발생할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2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수많은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해 환경 이슈에 대한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밀려났음을 시사합니다.

+1

[59-60페이지] 제2장 유럽: 분리 문제 (Europe: Detachment Issues)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및 하이브리드 침략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유럽 대륙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유럽은 정치적, 재정적, 산업적으로 이러한 전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

수십 년 동안 유럽은 하드 파워(군사력)보다 통합과 번영을 우선시할 수 있게 해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번성했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스크바의 끊임없는 군사적 및 하이브리드 침략은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고, 워싱턴의 점진적인 후퇴는 유럽의 고질적인 군사적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대륙을 방어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유럽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또한 철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유럽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안심시키기, 조건부 설정, 강압 사이를 오가며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

한 모호함은 심리적으로 유럽인들을 부정과 수용 사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미국을 유럽의 안보 질서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미국의 피벗(Pivot, 중심축 이동)과 상관없이 닥쳐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를 미뤘습니다.

+4

전쟁과 불안: 러시아의 군사적 및 하이브리드 침략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은 나토 회원국과 유럽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유럽의 협력적 안보 아키텍처를 산산조각 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가장 위협적이고 생생한 방식으로" 영토 보전 규범을 위반했습니다. 이제 5년째로 접어드는 이 전쟁은 "잔혹성과 폭력의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으며, 러시아는 전선의 일부 지역에서 전술적 주도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장 손실, 치명적인 제제,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강화된 타격, 그리고 협상을 향한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자신의 최대주의적 목표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완전한 전시 경제 모드에 있습니다. 2025년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GDP의 거의 8%)가 안보와 국방에 할당되어 국방 산업 생산의 확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일부 정보 기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휴전 이후 2년 이내에 발트해 지역에서 "지역 전쟁"을 위해 군대를 재편성할 수 있으며, 단일 이웃 국가에 대한 "국지적" 전쟁은 6개월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확대 징후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사보타주, 기물 파손, 사이버 공격, 방화 등 의심되는 러시아 발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캠페인을 더욱 강화했습니다(그림 2.1). 2025년 가을에는 영공 침범과 무단 드론 비행이 급증했습니다. 9월 한 달에만 약 20대의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러시아 MiG-31 전투기 3대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12분간 침범하여 두 정부 모두 나토 조약 제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4

[61-62페이지] 모호한 분리: 워싱턴의 변화하는 신호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워싱턴의 진화하는 태도는 유럽의 불안감을 심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부터 유럽이 자신의 방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재래식 억지력의 부담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지난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 약속을 GDP의 2%에서 5%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을 제외한 모

든 국가는 2035년까지 일반 국방비로 3.5%, 안보 관련 조치로 1.5%를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우크라이나입니다.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대선 공약을 포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조건과 잠재적인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바꾸며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유출된 미국 주도의 28개 조항 평화안은 러시아의 이익에 크게 치우쳐 있었으며 유럽 각국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안은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 미래 군대 규모의 엄격한 제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추가 확장 배제를 구상한 반면, 모스크바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양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워싱턴을 동맹국이 아닌 중재자로 묘사하며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미국 중개 대화를 상정했습니다. 비록 키이우와 여러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의원들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레드라인을 더 많이 고려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유출된 초안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럽의 선호도에 반하는 해결책을 추진하려는 워싱턴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2025년 1월 이후 급감하여, 유럽 국가들과 선별된 파트너들이 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그림 2.2). 2025년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격렬한 설전을 벌인 후, 행정부는 3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표적 선정 및 병력 보호에 필수적인 실시간 데이터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7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되었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정밀 대포, 헬파이어 미사일의 인도가 중단되면서 워싱턴이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유럽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산 무기 체계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교체 물량을 받는 형태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 무기에 자금을 대는 이 순환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선호하는 모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전반적으로 유럽 안보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점점 더 조건부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경제 정책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접근권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동조하는 것과 더욱 명시적으로 결부시켰습니다.

+1

[63-65페이지] 신뢰의 부식과 새로운 전략적 방향

유럽에 불리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7월의 EU-미국 무역 협정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진 양보로 묘사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자체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면서도, 유럽 대륙의 새로운 투자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방 계약업체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보장에는 더 높은 상업적 가격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설정과 변덕스러움의 결합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크게 부식시켰습니다(그림 2.3). 실제로 주요 유럽 국가와 캐나다 응답자의 약 절반에서 3분의 2가 미국이 나토의 덜 신뢰할 수 있는 일원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4

나아가 2025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NSS)은 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명문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유럽보다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했습니다. 유럽이 "어떤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방어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 문서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는, 이 전략은 유럽이 "문명적 소멸"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묘사하며 유럽의 "현재 궤적"에 대한 국내적 저항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러 유럽 지도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간섭이라며 거부한 표현입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고조되는 위협은 유럽인들을 격분시켰으며, 미국이 계속 동맹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덴마크 정보국이 평가한 대로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3

유기 불안: 부정과 수용 사이의 유럽 워싱턴의 변화하는 신호는 유럽을 수동적인 대응 모드로 몰아넣었습니다. 역지력과 우크라이나 유지를 위해 미국에 계속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 유럽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중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거의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워싱턴을 관여시키려 노력하는 동시에 더 큰 자율성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30개 이상의 유럽 및 유사 입장 파트너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은 군사 및 금융 원조를 조정하고 휴전 후 안보 보장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에 대한 조율된 제재 통과, 초기 28개 조항 평화안의 수정, 그리고 휴전 후 안보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워싱턴의 약속 등에서 보듯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

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또한 유럽의 고질적인 전략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미국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러시아 관리 및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 형성을 위한 일관되고 독립적인 비전의 부재입니다.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대립은 유럽의 순응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2

유럽이 국방비 지출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지만, 재정적 제약은 현재의 증액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압박과 전략적 노출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국방 예산을 약 41% 증액했습니다. 2025년에 모든 동맹국이 이전의 2% 지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훨씬 더 야심 찬 5%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독일처럼 조기에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운 국가도 있지만, 부채를 늘릴 재정적 여유나 "대포냐 버터냐"의 절충안을 다룰 정치적 공간이 부족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국방비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다중 속도와 규모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부의 부담 공유를 둘러싼 마찰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그림 2.4). 12월에 EU 회원국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대신 900억 유로의 차관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금융 붕괴를 막았지만,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의 집단적 결의가 가진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4

[65-68페이지] 산업적 딜레마와 행동력(Agency)으로의 전환

유럽의 자율성 딜레마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더 잘, 함께, 그리고 유럽식으로" 지출하겠다는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방 준비 태세를 높이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낡은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조달은 여전히 주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며 제 3국 공급자, 무엇보다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유럽 나토 회원국 장비 지출의 약 51%가 미국 시스템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2019-2021년 사이의 2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유럽 내부의 즉각적인 대안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안보 공약을 계속 묶어두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독자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대신 많은 정부가 패트리엇나 F-35 전투기 같은 미국 설계 국방 시스템을 유럽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워싱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존성을 고착화시킵니다.

+4

동시에 EU 회원국들은 2007년에 합의했던 '조달 예산의 35%를 공동 지출한다'는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해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국방 예산은 오히려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비용을 부풀리며 취약한 대중의 지지를 갉아먹는 새로운 '산업 민족주의'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량 계획, 조달, 개발이 더 잘 조율되지 않는다면 유럽의 국방 준비 태세는 훨씬 더 무거운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불안에서 행동으로 유럽이 미국을 의심의 여지 없는 안보 보증인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영토 보전, 무력 불사용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은 여전히 유럽과 그 너머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토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어떤 합의도 이러한 원칙에 확고히 뿌리를 두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관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잠재적인 휴전 이후 러시아의 재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3

동시에 유럽은 진정한 안보 제공자가 되기 위해 훨씬 더 단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공중 및 미사일 방어, 드론, 그리고 전략적 수송, 정보, 사이버 역량과 같은 '전략적 이네이블러(strategic enablers)' 분야에서 공유된 역량 우선순위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요구합니다. 이 분야들에서 유럽은 여전히 미국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과제들의 시급성과 합의 기반 의사결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진전은 용기 있는 '리더십 연합'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을 포함한 '바이마르 플러스(Weimar Plus)' 국가들이나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5개국 그룹(G5)'과 같은 소규모 선도 그룹들이 국방 산업 통합을 주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관된 유럽의 비전을 제시하며, EU 확대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비용과 정치적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수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망설인다면 유럽은 경쟁하는 세력권 사이의 '회색 지대'에 노출된 채로 남게 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꾸준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2

핵심 요약 (Key Points Summary)

1. 유럽은 장기적인 대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 전쟁과 확장되는 하이브리드 캠페인이 포스트 냉전 시대의 협력적 안보 질서의 잔재를 해

체하고 있습니다.

2. 유럽의 일차적 안보 보증인으로서의 미국의 점진적 후퇴는 유럽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안보 소비자'에서 '안보 제공자'로의 미완성된 전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워싱턴의 변화하는 신호에 직면하여 유럽 국가들은 부정과 수용 사이에서 갈등하며, 미국을 계속 관여시키려 노력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향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유럽 국가들은 유연한 리더십 연합을 형성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침식을 상쇄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INDO-PACIFIC)

[69페이지] 3.3 협정인가 허구인가? (Pact or Fiction?)

란돌프 카 (Randolf Carr)

중국의 이웃 국가 지배 욕구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과 지역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변했는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시대에 이 지역은 안정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은 이제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라이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도발과 강압은 지역 안정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최근 행동들이 그 목표에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모순된다고 봅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짐에 따라 이 지역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

판도 변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중국의 지배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안보 조약은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의 핵심축이었습니다. 대만 역시 비록 "전략적 모호성" 속에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해 오랫동안 안보 보호받아 왔습니다. 수십 개의 전방 기지로 강화된 미국의 군사력은 오랫동안 지역

내 다른 어떤 국가도 압도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 중국과 일본 및 필리핀 간의 영토 분쟁, 대만 해협의 마찰을 포함한 수많은 잠재적 갈등을 억제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정치적 화해와 경제 발전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장과 투자에 대한 접근은 중국을 포함한 지역 전체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는 안보와 경제의 두 기둥으로서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4

그러나 한동안 중국의 슈퍼파워로의 부상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중국은 역사상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실상의 지역 패권국 지위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 지역의 경제적 중력의 중심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는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이 거래하며, 중국의 GDP는 모든 이웃 국가의 합계를 초과합니다.

+1

[70페이지] 그림 3.1: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 2010-2024/25

- **국방 예산 (2010-2024, 단위: 10억 달러):**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010년 약 1,300억 달러에서 2024년 3,0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며 압도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도, 일본, 한국, 호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핵탄두 비축량 (2010-2025):** 중국은 2010년 240개에서 2025년 600개로 핵탄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인도는 80개에서 180개로, 파키스탄은 90개에서 170개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2025년 기준 50개로 추정됩니다.

[71페이지] 군사 확장과 대만 위기

중국의 군사 예산 또한 급증했습니다(그림 3.1). 1989년에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30분의 1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분의 1 이상에 달합니다. 베이징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함대와 미사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전력을 신속하게 현대화하는 것 외에도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핵탄두 수를 현재 추정치인 600개에서 1,5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이 배치한 수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많은 전략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 등 이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더라도 중국을 물리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3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많은 정부가 이제 무력에 의한 "재통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대는 대만 주변에서 점점 더 확장된 기동 훈련을 하며 그러한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은 최근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사이버 및 정보전을 넘어 중국 군대는 대만의 방어 한계를 시험하며 우발적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그림 3.2).

+4

그림 3.2: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횟수 (2020-2025) 중국 군용기의 침범 횟수는 2020년 390회에서 2024년 3,075회, 2025년에는 3,764회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위압적인 접근 방식의 피해자는 대만만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이 대만의 중국 공격 방어를 도울 경우 일본도 미국을 도와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베이징은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근처 침범을 포함한 격렬한 압박 캠페인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불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서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준군사적 행동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의 팽창주의적 신호는 베트남과 인도를 포함하여 중국과 국경 분쟁을 공유하는 다른 이웃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와 주권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언급했고, 일본은 스스로를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에서 중국의 지배로의 전환은 지역 전체의 우려 사항입니다.

+3

[72페이지] 지역적 대응과 미국의 모호성

"우리는 각자도생의 치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2025년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많은 지역 국가가 이러한 권력 이동과 악화되는 안보 지형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국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에 국방비를 GDP의 2%로 올리고 주로 중국을 겨냥한 반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다카이치 정부는 그 목표 기한을 2년 앞당겨 2026년 3월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국과 대만은 국방 예산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35년까지 GDP의 2.3%에서 3.5%로, 대만은 이미 17년 만의 최고치인 3.3%에서 2030년까지 5%로 올릴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3년 연속 군사 지출을 10%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동맹국들과 인도는 무기 거래와 공동 훈련을 통해 양자 및 소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상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4

피벗(Pivot)을 기다리며: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시각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적 노력에 군사적 및 경제적 무게를 전적으로 싣기보다는, 자국 접근 방식에 대한 중대하지만 혼란스러운 재평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전 미국 행정부들은 자원과 관심을 유럽과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및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피벗(중심축 이동)"하는 것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피벗은 널리 미완의 약속으로 간주됩니다. 인도와 같은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깊은 경제 통합이나 자원 배분 및 군사 태세의 결정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국가 안보 전략(NSS)에 기술된 것처럼 이 지역에 대해 더 좁은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3

NSS는 지역 관측통들에 의해 면밀히 분석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대략적으로 중국의 대만 장악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재확인하고 그러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를 목표로 하며, 동맹국들이 그 목표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압박"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제적 관계 재균형을 돕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적 전환은 지역 파트너십이 워싱턴의 중국 의제를 진전시키는지 여부라는 렌즈를 통해 점점 더 많이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지역 지도자들에게 워싱턴은 중국을 "보조를 맞추는 위협"으로 취급하는 것과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모색하는 것 사이에서 자국 접근 방식을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

[73페이지] 미국의 엇갈린 신호와 동맹국의 의구심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NSS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첫해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일부 안심시키는 징후가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동요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관료들은 인도-태평양을 "우선순위 전역"으로 명명하고 지역 내 미국의 방위 조약을 "철통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및 호주와의 무기 거래와 같은 다른 국방 협력 및 합동 군사 훈련의 강화는 일부 마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의 금지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후 워싱턴은 거듭 물러났으며 베이징과 거래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제한이나 중국 소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TikTok) 금지와 같은 다른 주요 이슈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조치들을 선택했습니다.

+3

일부 관측통들은 파트너를 지원하는 것이 베이징과의 거래를 촉진하는 것보다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인상을 강화하듯, 대만이나 일본, 필리핀과 같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발언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나 공식 문서들과 달리 모호했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수도의 관측통들에게 중국에 실질적으로 맞서려는 미국의 의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1

한편, 미국은 동맹국들이 직접 중국에 맞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이 나토(NATO)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GDP의 10%까지 목표로 삼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역 전역에서 국방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폭 인상은 중국의 분노를 사는 것 외에도 이미 뻣뻣한 예산과 대중의 불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은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고, 동맹국들에게 주둔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며, 심지어 동맹국에 대한 안보 보장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 미국의 존재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더욱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NSS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미국은 서반구에 상당한 정치적 관심과 군사적 자원을 쏟고 있으며, 동맹국들은 이것이 인도-태평양을 희생시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합니다.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시를 따르더라도 미국이 자신들의 뒤를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4

"아시아 동맹국들은 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로 GDP의 5%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가공할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국방비 지출은 그보다 적습니다." — 피트 헤그세스 (Pete Hegseth) 미국 국방장관, 2025년 5월 31일 상그릴라 대화

"그리고 동맹국들을 포함한 국가들이 수년 동안 우리를 등쳐먹었습니다(ripping us off).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본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관세 덕분에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년 12월 2일 내각 회의**

그러나 미국과 지역 간의 관계를 무엇보다 긴장시킨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거의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는 "공포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국가의 GDP 성장률은 3~6%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관세로 인해 2025년 말까지 경제가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로서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인도조차 50%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2

패권에서 위험 분산(Hedging)으로? 인도-태평양의 신뢰 위기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친구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불평했고, 일본의 한 고위 정책 입안자는 이를 "동맹에 대해 매우 무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구심은 대중의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인의 34%만이 섬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믿으며, 일본 대중 중 미국이 일본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믿는 비율은 단 15%에 불과합니다. 불확실성은 지역 내 미국의 목표에 대한 지지 또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동원하려 하지만, 2025년 대만 분쟁 개입을 지지한 호주인은 전년도 51%에서 하락한 42%에 그쳤습니다.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이익과는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2025년에 76%라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행위자들은 설령 까다로운 요구를 수용해야 하더라도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정부들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을 수용하기 위해 가장 끈질기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은 각각 미국에 투자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환적(transshipment)에 대한 엄중 단속을 약속했고, 태국과 대만은 미국산 에너지 및 무기 수입을 통해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또한 기존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강조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4

일부는 워싱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반면, 다른 다중 동맹 (multialigned) 지역 행위자들은 종종 중국에 손을 뺐으며 위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오랜 긴장 기간을 거친 후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은 대안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상품 무역 협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중국과의 자유무역 지대(FTA) 업그레이드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며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안정의 귀감"으로 제시했습니다.

+4

[75페이지]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역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 시대는 끝났으며,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은 지역 지배를 위해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해 노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조율하기보다는 더 좁은 목표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 제공의 부담과 위험을 더 많이 짊어지도록 동원하고, 파트너들로부터 외견상 더 유리한 경제적 거래를 끌어내며, 베이징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패권 시대를 정의했던 군사적 우위나 경제적 개방성은 오늘날 워싱턴으로부터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림 3.3).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동조하는 것은 과거보다 많은 지역 행위자에게 더욱 매력 없는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대결과 수용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미국의 동맹국들은 베이징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하기를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림 3.3: 선별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대미 및 대중 무역 (주요 수치), 2023/2025, %

(역자 주: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에 대한 가중 평균 관세율 비교)

| 국가 | 대미 무역 비중 (2023) | 대중 무역 비중 (2023) | 무역 비중 차이 | 대미 관세율 (2025) | 대중 관세율 (2025) | 관세율 차이 |
|----|-----------------|-----------------|----------|---------------|---------------|---------|
| 호주 | 6.9 | 29.2 | 중국 +22.3 | 6.2 | 5.2 | 미국 +1.0 |
| 인도 | 10.7 | 12.5 | 중국 +1.8 | 34.2 | 30.5 | 미국 +3.7 |

| 국가 | 대미 무역 비중 (2023) | 대중 무역 비중 (2023) | 무역 비중 차이 | 대미 관세율 (2025) | 대중 관세율 (2025) | 관세율 차이 |
|-------|-----------------|-----------------|----------|---------------|---------------|----------|
| 인도네시아 | 7.2 | 26.6 | 중국 +19.4 | 22.6 | 0.6 | 미국 +22.0 |
| 일본 | 15.0 | 20.0 | 중국 +5.0 | 13.5 | 10.2 | 미국 +3.3 |
| 필리핀 | 9.9 | 20.1 | 중국 +10.2 | 14.8 | 0.1 | 미국 +14.7 |
| 싱가포르 | 10.8 | 13.9 | 중국 +3.1 | 2.7 | 0.6 | 미국 +2.1 |
| 한국 | 14.8 | 21.0 | 중국 +6.2 | 13.2 | 1.6 | 미국 +11.6 |
| 태국 | 11.8 | 18.3 | 중국 +6.5 | 18.9 | 16.1 | 미국 +2.8 |
| 베트남 | 16.3 | 25.2 | 중국 +8.9 | 20.7 | 19.6 | 미국 +1.1 |

[76-77페이지] 결론: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점

어떤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중국에 잘 보이며 노력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들은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지역 전체는 덜 헌신적이고 더 거래적인 미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던 깨달음을 촉진했습니다. 미국의 "피벗"은 설령 일어났더라도 인도-태평양의 과거 질서를 결코 회복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갑자기 유럽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EU나 나토에 필적할 만한 협력 기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헌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각 국가가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스스로 대처하려 한다면 이 지역 앞에는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Key Points)

1. 미국은 한때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에서 지배적인 군사적 및 경제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중국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2. 특히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은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중국에 맞서고 지역 동맹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수사(rhetoric)는 흔들리는 대중 정책 및 국방비와 무역을 둘러싼 동맹국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와 대조를 이룹니다.
4. 그 결과 인도-태평양 행위자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과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점점 더 의심하고 있습니다.
5. 인도-태평양 행위자들은 미국의 헌신을 끌어내려는 노력과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은 불확실한 새로운 안보 지형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GLOBAL ECONOMY)

[79페이지] 4. 교역 조건 (Terms of Trade)

주요 강대국들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가? 무역 제한과 시장 개입이 경제 성장과 무역에 미치는 연쇄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적 강압의 시대에 규칙 기반 무역 협정의 미래는 어떠한가?

+1

줄리아 함멜레흐레 및 노라 퀴르츠되르퍼 (Julia Hammelehle & Nora Kürzdörfer)

2025년, 글로벌 무역 질서는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수년간 지정학이 무역 정책을 꾸준히 잠식해 온 끝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이 만드는 데 일조했던 세계 무역의 조건들을 노골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강압적인 경제 도구와 시장 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목표가 공유된 경제적 이득보다 점점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파편화가 심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는 새로운 무역 연합들이 등장하고 있어 전망이 전적으로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4

호혜성에서 위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의 규칙을 만들으로써 세계 경제 회복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국가들은 비차별성, 투명성, 구속력 있는 공약의 원칙에 따라 경제를 개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이후 WTO에 명문화된 규칙들은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는 분산된 호혜성(diffuse reciprocity),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위자들 사이에 이득이 공정하게 공유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수용했습니다.

+3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 체제는 평등한 성장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WTO가 공동 규칙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중국이 2001년 가입했을 때 많은 이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이 더 개방적인 시장 경제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설은 어긋났고, WTO 규칙은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억제하기에 부적절함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산업 쇠퇴의 핵심 원인으로 봅니다.

+3

[80페이지] 미국의 이탈과 "해방의 날"

이러한 인식은 미국이 한때 구축을 도왔던 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후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후퇴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가시화되었고, 이는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비시켰습니다. 미중 라이벌 관계가 깊어지고 국가 안보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워싱턴은 국내 재산업화를 촉진하고 중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한적인 무역 조치들을 강화했습니다.

+2

글로벌 무역 체제에 대한 불만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저소득 및 중소득 경제국들은 글로벌 무역 규칙이 부유한 국가들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01년에 시작된 도하 개발 아젠다(DD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농업 보조금 및 시장 접근을 둘러싼 갈등 속에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이 교착 상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다자간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

이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호혜성과 비차별성이라는 조직의 핵심 원칙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무역 적자

를 미국의 제조업을 황폐화하고 미국을 "중대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재앙의 직전"으로 몰아넣은 불공정 외교 무역 관행의 증거로 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 정부는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WTO 규정에 어긋나는 방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평균 관세율은 1930년대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인 15%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1

트럼프에게 이 세금은 여러 경제적 목적을 수행합니다. 미국 제조업과 블루칼라 일자리를 촉진하고, 국내 세수를 늘리며, 중국 및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 이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관세를 강압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정부들이 불공정한 무역 거래에 서명하고 국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전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기소에 대응한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 이후의 관세 위협, 그리고 기술 규제를 둘러싼 EU에 대한 압박 등이 있습니다. 2026년 초,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자신의 야망에 반대한 유럽 8개국에 대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3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가깝고 먼 나라들, 친구와 적들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털리고 강간당하고 약탈당해 왔습니다."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 연설**

[81페이지] 경제적 강압과 GDP 영향

미국의 경제적 강압 사용은 규칙 기반 무역 질서와의 의도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 경제적 근육을 과시한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급소(chokepoints)의 무기화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1

패자들만 남게 될 것인가? 글로벌 무역과 성장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격의 제동력이 초기 우려보다는 약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제 글로벌 성장이 2024년 3.3%에서 2025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초기 추정치인 2.8%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지연된 시행, 면제 조치, 그리고 제한적인 보복으로 인해 관세가 예상보다 부드러웠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는 국가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그림 4.1),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및 중소득 경제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관세가 이들 국가 GDP의 0.5%에 해당하는 수출을 삭감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저개발국(LDCs)에 대한 현저히 높은 미국의 관세는 이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부담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5장).

+4

"만약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붕괴하고 모든 것이 무한한 양자 간 거래의 연속이 된다면, 이는 작은 국가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2025년 4월 8일 파이낸셜 타임즈**

그림 4.1: 미국 관세가 G7, BRICS 및 기타 주요 국가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2026년 시나리오, %)

- **전 지구적 영향:** -0.4%
- **가장 큰 타격:** 캐나다(-2.1%), 멕시코(-1.7%), 베트남(-1.3%)
- **G7:** 미국(-0.7%), 일본(-0.2%), 이탈리아(-0.1%), 독일(-0.2%), 프랑스(-0.05%)
- **BRICS:** 인도(-0.5%), 브라질(-0.3%), 남아공(-0.5%), 중국(-0.2%), 러시아(-0.1%)

[82페이지] 그림 4.2: 경제적 불확실성 (2005-2025, GEPU 지수 수치)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관세 그 자체보다 글로벌 경제 전망에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GEPU) 지수는 "해방의 날"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정점 당시 수준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수치가 코로나 정점 당시만큼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그림 4.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에게 이 불확실성은 "모든 관세 중 가장 높은 관세"입니다.

+3

미국의 쏟아지는 무역 거래들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합의 조항이 모호하며, 그린란드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듯 트럼프에 의한 새로운 관세 조치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긴장은 빠르게 다시 타오를 수 있으며, IMF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생산량을 추가로 0.3%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중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이에는 이(tit-for-tat)' 식의 보복 위험입니다. 2025년 이들의 관세 위협과 수출 통제의 소용돌이는 글로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핵심 광물 수출에 대한 베이징의 억제책은 유럽의 자동차 및 국방 부문을 포함하여 전 세계 산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돌린 중국 제품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기존의 가격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덤핑에 직면하여 인도에서 EU에 이르는 정부들은 철강 시장 등에서 보호무역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깊어짐에 따라 파편화와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 비용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4

[83페이지] 미국의 경제 전망과 중국의 부상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함을 증명하고 2025년 주식 시장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비용은 미국의 경제 전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는 2025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1,24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지불하고 있으며, 점점 더 높은 가격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까지 소비자들이 이 부담의 3분의 2를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트럼프의 약속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2025년과 2026년 미국의 GDP 성장을 약 0.5%포인트 축소시킬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또한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일자리를 미국으로 "화려하게 복귀"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제조업 고용은 현재의 7.9%에서 고작 1.7%포인트 상승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그 이후 4년 만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4

정치적으로 트럼프는 몇 가지 빠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트너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불리한 무역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거래들은 정치적 자본을 소진시켰습니다. 과거의 긴밀한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부식되었고, 미국으로부터의 다각화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에게 미국의 무역 압박은 워싱턴에 대한 태도를 경화시켰으며 이들을 베이징에 더 가깝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물러나며 생긴 공백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증가했으며, 베이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브라질, 케냐 등과 무역 및 경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53개 아프리카 국가에 무관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개방 무역의 수호자라는 중국의 자기 묘사는 수출 통제와 과잉 생산을 포함한 지속적인 시장 왜곡과 충돌합니다.

+4

무역은 계속되는가? 미국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직면하여 전 세계 정부들은 무역

제한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무역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더 깊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제 협력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급증했으며,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일부 협상들이 속도를 냈습니다(그림 4.3). 사례로는 메르코수르,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와 EU 간의 FTA 협상이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페루 간의 협정은 강화된 남남(South-South) 협력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ASEAN, EU와 같은 무역 블록들은 내부 시장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결성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과 같은 무역 협정에는 새로운 가입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4

이러한 심화되고 새롭게 부상하는 연합들은 WTO 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임계 질량(critical mass)이 형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낙관론자들에게 글로벌 무역의 72%가 여전히 WTO 규칙에 의해 적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큰 연합들이 WTO에서 미국을 우회하거나 워싱턴이 WTO 개혁에 타협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PIA)이 종종 그 예로 인용됩니다.

+3

"나에게 메르코수르는 완벽한 안티 트럼프 협정입니다." — **만프레드 베버 (Manfred Weber) 유럽국민당 대표, 2026년 1월 18일**

[84페이지] 그림 4.3: 2024년 11월 이후 미국 이외 국가들 간의 주요 신규, 재개 및 타결된 무역 협상

(역자 주: 주요 협상 현황 요약)

- **유럽-글로벌 사우스:** EU-메르코수르(1999년 시작, early 2026 서명 기대), EU-인도(2007년 시작), EU-태국(2013년 시작), 영국-인도(2022년 시작).
- **기타 글로벌 노스-글로벌 사우스:** 호주-UAE(2023년 서명), 캐나다-ASEAN(2021년 시작), 일본-GCC(2006년 재개).
- **남남(South-South) 협력:** 인도네시아-페루(2023년 서명), 칠레-인도(2025년 신규), 메르코수르-UAE(2024년 서명).

[86페이지] WTO 개혁과 무역 질서의 미래

미국이 상소기구를 마비시킨 후, WTO 회원국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5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무역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일부는 최근 중국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WTO 개혁에 대한 추가적인 유망한 신호가 있다고 봅니다. 베이징은 개발도상국 지위 덕분에 얻었던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WTO 내의 "논란거리" 하나를 제거하긴 했지만, 보조금이나 공정한 시장 접근과 같은 더 광범위한 개혁을 중국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더 나아가 미국의 WTO 준수 없이는 다른 국가들이 규칙을 따를 인센티브가 "빠르게 증발"할 것이며 공동의 규칙은 신기루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

2025년은 권력 정치가 점점 더 교역 조건을 규정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의 미래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규칙 기반 무역의 바로 그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강압과 시장 왜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예상보다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WTO 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협력 형태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연합들이 규칙 기반 무역을—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유지하기에 충분할지, 아니면 시스템이 완전히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붕괴될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무역 질서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87페이지] 핵심 요약 (Key Points)

세계 경제 (GLOBAL ECONOMY)

1. 전후 글로벌 무역 질서는 호혜성과 비차별성의 원칙에 기초했지만, 평등한 성장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점점 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2. 미국은 무역 적자를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거로 보고 "해방의 날"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규칙 기반 질서와 단절하고 강압적인 경제 도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은 시장 왜곡 관행을 지속하면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개함으로써 경제적 급소(chokepoints)의 무기화를 강화해 왔습니다.
4. 무역 제한과 경제적 강압은 전례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인 후생 손실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5. 미국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직면하여, 많은 정부는 무역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연합을 형성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이미지/전환 페이지)

5 개발 및 인도적 지원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89페이지] 수천 번의 자상으로 인한 죽음? (Death by a Thousand Cuts?)

아마데 무디-만츠 (Amadée Mudie-Mantz)

글로벌 개발을 진전시키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뛰어난 다자간 합의를 인류가 축하한 지 불과 10년 만에,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시스템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조가 점점 더 정치화되고 전통적인 공여국들이 국가 이익을 더 좁게 정의함에 따라, 과거 그들의 참여를 이끌었던 원칙들은 연관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

2015년에 국제 사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을 채택하며 다자주의의 황금기에 진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가들은 "누구도 뒤처지게 하지 않는다"는 보편적 원칙 아래 평화, 글로벌 개발, 그리고 건강한 지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따르며 단결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이 야심 찬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SDGs의 진전은 더뎠으며, 세계는 2030년까지 17개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할 궤도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표에서 상당한 정체와 심지어 퇴보가 있었습니다.

+1

[90페이지] 정체된 진전과 고갈되는 자금

동시에 인도적 필요는 급증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과 사상 최고치에 달한 갈등 수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약 3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의 지원 의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적 지원 요구액 중 단 40%만이 채워졌으며, 이는 2015년의 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2

이러한 "자금 부족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압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많은 서구 사회에

서 부상하는 포퓰리즘 세력은 대외 원조를 자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글로벌리스트의 사치"로 묘사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여국들은 이제 원조를 보편적 인권이나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 억제나 안보 파트너십 확보와 같은 좁은 국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91페이지] 그림 5.1 & 5.2: 데이터 요약

- **그림 5.1 SDGs 진전 상황 (2024년 기준):** 17개 목표 중 단 17%만이 달성 궤도에 있으며, 30% 이상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 **그림 5.2 인도적 지원 자금 격차:** 지원 필요액은 2015년 이후 2.5배 증가한 반면, 실제 집행된 자금은 그 증가폭을 훨씬 밑돌아 2024년 기준 약 280억 달러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

[92페이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개발 시스템의 마비

이러한 상황에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이미 취약한 시스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의 개발 및 인도적 지원 공여국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이를 근본적으로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DGs를 "주권을 침해하는 글로벌리스트의 아젠다"로 규정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지원의 조건으로 "미국 우선주의" 가치에 대한 명시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지원 중단(Global Gag Rule의 부활)은 수백만 명의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93-94페이지] 국제기구로부터의 퇴각

미국은 또한 UN 산하 주요 기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하고 있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전면 중단은 가자 지구의 인도적 재앙을 심화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재선언은 글로벌 보건 안보 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

그림 5.3 주요 국제기구 내 미국의 자금 비중: 미국은 UN 본부 예산의 22%, WFP(세계식량계획)의 35% 이상을 부담해 왔습니다. 미국의 이탈은 이 기구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

[95페이지] 보호 격차(Protection Gap)의 심화

공여국들이 물러나면서 "보호 격차"가 위험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원칙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호 요원들에 대한 공격은 2024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갈등 당사자들은 굶주림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한 국가들의 부채 위기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

[96페이지] 대안적 파트너십과 로컬화

워싱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행위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를 통해 남남 협력을 강조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

동시에 원조 시스템의 개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컬화(Localization)"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제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현지 NGO와 공동체에 직접 자금을 전달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97페이지] 핵심 요점 (Key Points)

개발 및 인도적 지원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 국제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시스템은 필요의 급증과 공여국들의 지원 의지 감퇴 사이에서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SDGs는 달성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다자주의의 약속은 국가 이익을 앞세

운 정치적 계산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과 기구 탈퇴는 글로벌 보건, 식량 안보, 여성 인권 분야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4. 원조의 정치화와 지정학적 경쟁은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5. 위기 극복을 위해 원조의 로컬화와 새로운 공여국들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팩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99-101페이지] 생각할 거리 (Food for Thought)

(역자 주: 이 섹션은 관련 분야의 주요 저서와 보고서들을 리뷰한 내용입니다.)

- **Ray Dalio, "The Changing World Order"**: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기로 분석하며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경고합니다.
- **Rockefeller Foundation, "A Mandat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20 국가 시민들이 자국 이익보다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더 원한다는 설문 결과를 보여줍니다.
- **EUISS, "Low Trust: Navigating Transatlantic Relations under Trump 2.0"**: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유럽이 미국과 어떻게 저신뢰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지 분석합니다.